

# CONTENTS

본교재와 해설지 모두 맨 뒤쪽에는 ‘빠른 정답’이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기 전 채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권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 생각의 시작

#### Day 1

교재의 사용법	012P
국어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 : ‘생각’합니다.	019P
필연성, ‘생각’의 시작	022P
글 읽기의 시작 - 어휘력	025P

#### Day 2

독서 공부의 기본 : 이해하고, 납득한다.	034P
문장 단위 독해 연습 - 개념의 정의	038P

#### Day 3

문장 단위 독해 연습 - 재진술	048P
문장 단위 독해 연습 - 사례-원리 연결	058P
문장 단위 독해 연습 - 고정값	063P

#### Day 4

단문 단위 독해 연습	066P
문제풀이 기본 도구	076P

### 생각의 전개

#### Day 5~Day 10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1) :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088P
--	------

#### Day 11~Day 14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2) : 결국, 다 같은 말이다.	118P
--	------

#### Day 15~Day 17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3) : 정보는 카테고리화된다.	140P
---	------

#### Day 18~Day 19

추상적인 원리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한다.	156P
-------------------------	------

## 2권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 생각의 확장

#### Day 20~Day 23

제재별 독해 - 인문

#### Day 24~Day 28

제재별 독해 - 과학 · 기술

#### Day 29~Day 33

제재별 독해 - 법

#### Day 34~Day 40

제재별 독해 - 경제

#### Day 41~Day 42

생각의 틀 총정리  
오답과 정답을 가르는 시험장에서의 태도  
2026학년도 수능

### 교재를 마무리한 후

# 지문 목차 \_ 독서편

복습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문의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예시로 들었던 지문을 제외하고, 한 지문 단위로 공부해보았던 지문만 정리했습니다.

## 1권

### 생각의 전개

#### Day 5~Day 10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1) :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2011.06 [23~27] 인문 '회화적 재현'	92P
2015.11B [21~24] 인문 '사회 이론'	94P
2018.06 [16~21] 인문 '울곡의 수기치인'	96P
2023.06 [4~9] 인문 '역사와 학문의 정치 현실 적용'	99P
2020.11 [26~29] 기술+과학 '이식의 문제점'	102P
2024.11 [4~7] 사회(사회학)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해결'	104P
2025.11 [14~17] 인문+사회(법)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	106P
2023.11 [14~17] 과학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비례 관계'	108P
2020.06 [37~42] 인문+과학 '개체성'	110P
2019.11 [27~32] 과학+인문 '서양과 중국의 우주론'	114P

#### Day 11~Day 14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2) : 결국, 다 같은 말이다.

2017.11 [37~42] 사회(경제+법) '공정한 보험과 고지 의무'	121P
2021.06 [29~33] 사회(법+경제) 'ICT 산업'	124P
2025.09 [8~11] 기술 '블록체인 기술'	126P
2023.09 [14~17] 기술 '인터넷 검색 엔진'	128P
2022.11 [14~17] 기술 '어라운드뷰'	130P
2024.11 [8~11] 기술 '정확한 데이터 처리'	132P
2026.06 [4~9] 인문+사회(법) '법 모델과 임대차 계약'	134P
2022예시 [5~10] 인문 '이원론&동일론'	138P

#### Day 15~Day 17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3) : 정보는 카테고리화된다.

2025.06 [4~7] 사회(경영학) '과두제적 경영'	144P
2025.09 [4~7] 사회(법)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146P
2019.09 [29~32] 기술 'STM'	148P
2024.09 [4~7] 사회(법+경제)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	150P
2010.09 [13~17] 인문 '동양에서의 천(天)'	152P
2021.12 [34~37] 기술 '3D 합성 영상'	154P

#### Day 18~Day 19 추상적인 원리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한다.

2022.06 [4~9] 인문 '서양과 동양의 인과 관계'	158P
2019.11 [39~42] 인문 '가능세계'	162P
2023.06 [14~17] 사회(사회학) '사건의 효과 평가'	164P
2025.06 [12~17] 인문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	166P

## 2권

### 생각의 확장

#### Day 20~Day 23 제재별 독해 - 인문

2022.06 [10~13] 인문 '베카리아의 형벌론'  
2017.11 [16~20] 인문 '콰인의 총체주의'  
2026.06 [14~17] 인문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2025.11 [4~9] 인문 '동양에서의 서양 문물 수용'  
2024.06 [12~17] 인문 '의식과 지각'  
2024.11 [12~17] 인문 '노자의 도에 대한 해석'  
2023.09 [4~9] 인문 '아도르노의 미학'  
2022.11 [4~9] 인문 '변증법 모델로 본 예술의 상대적 위상'

#### Day 24~Day 28 제재별 독해 - 과학 · 기술

2026.06 [10~13] 기술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활용'  
2018.11 [38~42] 기술 '부호화'  
2013.11 [43~45] 기술 '음성 인식 기술'  
2025.06 [8~11] 기술 '플라스틱의 형성 원리'  
2017.11 [33~36] 과학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이용'  
2023.06 [10~13] 과학 '비타민 K의 역할'  
2019.06 [35~38] 기술 'LFIA 키트'  
2022.06 [14~17] 기술 'PCR'  
2026.09 [14~17] 기술 '지각부호화'  
2022예시 [30~34] 기술 '충전지'

#### Day 29~Day 33 제재별 독해 - 법

2017.09 [35~39] 사회(법) '법인격 부인론'  
2019.06 [22~26] 사회(법) '사법'  
2023.09 [10~13] 사회(법) '유류분권에 의한 무상 처분 재산 반환'  
2020.09 [27~31] 사회(법) '점유'  
2019.11 [16~20] 사회(법) '법률 효과'  
2021.12 [26~30] 사회(법) '예약'  
2021.09 [26~30] 사회(법) '행정입법'  
2023.11 [10~13] 사회(법) '법조문에서의 불확정 개념'  
2014예비A [22~24] 사회(법) '법률의 해석'  
2019LEET [28~30] 사회(법) '근대법의 기획'

---

### Day 34~Day 40 제재별 독해 - 경제

2020.11 [37~42] 사회(법+경제) '말랑말랑한 법(soft law)'

2019.09 [21~25] 사회(경제) 'CDS 프리미엄'

2011.11 [44~46] 사회(경제) '채권의 가격'

2018.06 [22~25] 사회(경제) '통화 정책'

2020.06 [27~31] 사회(경제) '금융과 경제 안정'

2019LEET [16~18] 사회(경제) '심적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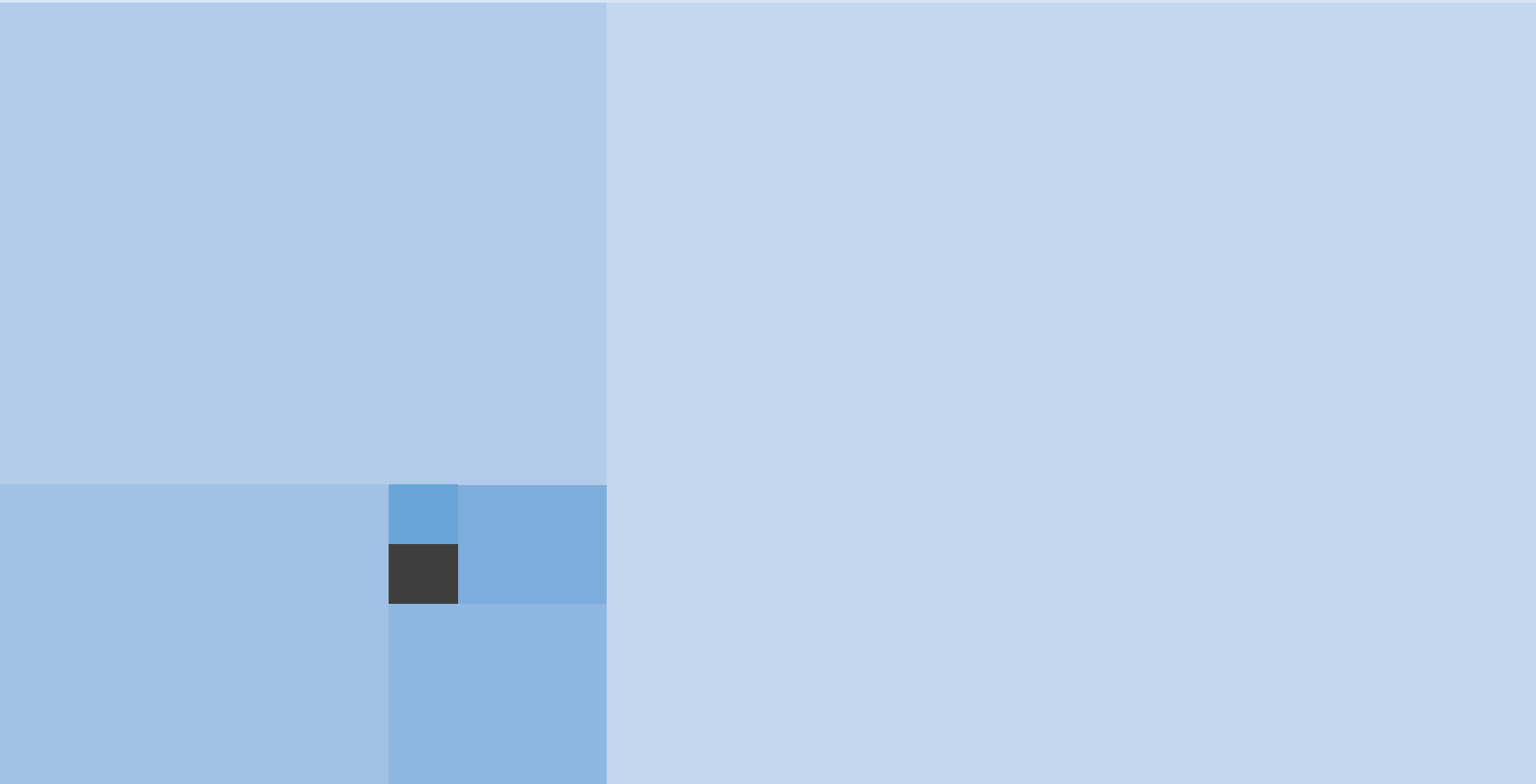
2017LEET [14~17] 사회(경제) '금융 위기의 원인'

2018.11 [27~32] 사회(정치+경제) '정책 수단의 선택'

2022.11 [10~13] 사회(경제)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P . I . R . A .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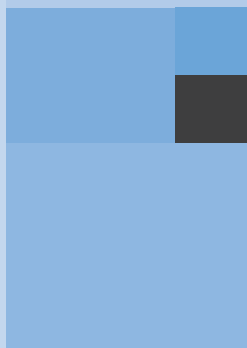


# 1

# PART

## 생각의 시작 〈Day 1~Day 4〉

이 교재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 보며 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진 뒤, 글 읽기의 시작인 ‘단어’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입니다. 딱 4일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어 공부에서 든든한 초석이 될 이 나흘을 착실하게 보내봅시다.





“P.I.R.A.M 국어”와 함께 하는 국어 공부의 첫날입니다. 먼저 이 교재의 사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적힌 내용들을 읽고 정리하는 것도 ‘글 읽기 경험’입니다. 정말 국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보도록 합시다.

## 교재의 사용법

완벽한 국어영역 독학서, “P.I.R.A.M 국어”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 수능 국어 공부를 위한 보편적 커리큘럼의 일부가 된 이 교재. 도대체 어떻게 이용해야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P.I.R.A.M 국어”는 하나의 시리즈로 여러분의 국어 공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 글을 읽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가장 정석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학습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재는 ‘Daily’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 0. For 2027 “P.I.R.A.M 국어” 시리즈 표준 커리큘럼

단계	기반 닦기	A to Z	EBS 학습	고난도 독서	마지막 정리	기출문제 학습
독서	생각의 발단	생각의 전개		생각의 절정	생각의 결말	10개년 기출문제집
문학	필수 고전시가	생각 워크북	생각의 위기:기회		(전자책)	옛기출 선별집

시기	~1월 말	~4월 말	~6월 모의평가	~여름방학	~10월 말	~수능
커리큘럼	생각의 발단 + 필수 고전시가	생각의 전개 + 생각 워크북	생각의 전개 + 생각 워크북 (2회독)	10개년 기출문제집 + 옛기출 선별집 + 생각의 위기:기회	10개년 기출문제집 + 옛기출 선별집 + 생각의 절정	생각의 결말

2027학년도 수능 대비 ‘P.I.R.A.M 국어’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표준 커리큘럼으로 제공됩니다. 본인의 실력,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나만의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보세요. 각 단계의 대략적인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반 닦기

먼저 ‘생각의 발단’의 경우, ‘생각의 전개 독서편’ 초반부 내용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 태도를 설정하고, ‘문장→문단→지문’의 순서로 사고력을 확장시켜나가는 단계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국어를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생각’하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교재입니다. 공부를 거의 처음 시작하는 노베이스라면 꼼꼼하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속도를 내면서 가볍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 교재를 봐야 하는 수준인지 궁금하다면, ‘생각의 전개 독서편’ 교재의 초반 4일차를 먼저 진행해보세요. 아무런 무리없이 이해가 되고 글이 읽힌다면 계속 ‘생각의 전개’를 보시면 되고, 조금 어렵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생각의 발단’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고전시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필수 고전시가’ 교재가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 대비를 열심히 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필수적인 고전시가들이 공부가 된 학생들이라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교재입니다. 하지만 고전시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고전시가를 정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꼭 먼저 공부해주세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필수적인 고전시가의 정리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 A to Z

말 그대로 수능 국어의 A부터 Z까지 모두 다루는, ‘P.I.R.A.M 국어’ 시리즈의 메인 커리큘럼입니다. ‘생각의 전개’ 시리즈의 경우, 교재의 이름처럼 국어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전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교재입니다. 테마를 정해 각 테마별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정립하고, 평가원 기출문제 위주로 그 태도를 연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어 영역에 필요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 평가원 기출문제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정리하는 경험을하실 수 있습니다. ‘A to Z’라는 이름답게 꽤 많은 분량을 자랑하며, 이에 따라 1권/2권 두 권으로 나눠 출판됩니다. 두 교재는 내용이 연결되는 하나의 교재이니, ‘생각의 전개’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두 권 모두 구입해 주세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생각 워크북’의 경우, ‘생각의 전개’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요 평가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습을 해보는 교재입니다. 교재 이름처럼 ‘생각의 전개’의 워크북 역할을 하며,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더 탄탄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생각의 전개’와 ‘생각 워크북’을 모두 공부하시면, 10개년 기출문제 전문향을 포함해 19개년 기출문제 주요 문항을 공부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기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 EBS 학습

문학 EBS를 가장 ‘수능답게’ 정복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작품 분석·주제 및 줄거리 정리 등이 아니라, ‘생각의 전개’에서 배운 내용을 문학 EBS 작품들을 통해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지루하게 달달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EBS 연계를 가장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단순하고 지루한 EBS 지문 공부로 인해 상반기에 공들여 쌓아 놓은 ‘생각의 힘’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생각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드리는 교재가 바로 ‘생각의 위기:기회’입니다.

## 고난도 독서

다시 찾아온 불독서의 시대. 우리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의 절정’ 교재는 엄선된 LEET언어이해 교재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절정’으로 이끌어주는 교재입니다. 시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깔끔한 LEET언어이해 해설지를 통해 압도적인 독서 실력을 만들어드립니다.

## 마지막 정리

파이널 기간은 새로운 것을 쌓는 기간이 아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생각의 결말’ 교재는 전자책으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며, 반드시 아름다울 우리 생각의 ‘결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당해 모의평가 해설지 / 분석서를 비롯,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마지막 기출, 수능 직전 이용할 예열 자료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수능 당일 아침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피램이 에스코트합니다.

##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 분석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수능의 그날까지, 지겹도록 반복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 과정을 돕기 위해 ‘P.I.R.A.M 국어’ 시리즈는 ‘10개년 기출문제집’과 ‘옛기출 선별집’을 준비했습니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우직하게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수능 국어 만점도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입니다.

### 1. 누구를 위한 교재인가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은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중 최소한의 문장 독해력과 어휘력이 갖춰진 ‘4~5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각 성적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간략한 가이드라인이니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성적대는, ‘평균적인’ 점수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최고점은 본인의 실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성적 상승의 시작입니다.)

시기	사용법
백분위 98 이상	언제나 넉넉하게 1등급을 받는 성적대를 가진 학생일지라도, 분석 후 해설을 읽어보면 얻어갈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교재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설명 · 태도 정립 부분은 가볍게 읽어도 되지만, 지문 해설은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분석과 교재의 분석을 비교하시면서 새롭게 느껴진 부분, 괜찮다 느껴진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이 교재의 내용 자체를 흡수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해와 문제풀이의 틀을 이 교재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고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2등급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가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재를 정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알게 된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생각의 확장’ 파트는 특히 꼼꼼하게 공부해 주세요. 고정 1등급이 되기 위한 태도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에서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교재를 통해 배운 내용을 여러 지문에 스스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연습을 거치면 높아만 보였던 만점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2~4등급	이 교재를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국어에 대한 감이 없지는 않으나 말 그대로 ‘감’으로만 국어를 대하다 보니 점수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재의 단계를 처음부터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밟으시면서 지문과 문제를 대하는 본인만의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4~5등급 이하	처음부터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재의 텍스트 자체가 많기도 하고, 애초에 쉬운 지문들은 거의 실어두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기반 닦기’ 단계의 교재를 먼저 공부하고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단어’ 단위의 공부를 ‘문장’ 단위로 확장시키는 날입니다. 수능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 출제되고, 우리는 그 문장들을 어떤 ‘생각’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봅시다.

## 독서 공부의 기본 : 이해하고, 납득한다.

본격적인 문장 학습에 앞서, 앞으로 독서 파트를 공부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하나를 세우고 가겠습니다. 국어를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장에서의 ‘시간 부족’을 호소합니다. 한두 지문을 통으로 찍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독서 지문은 구경도 못해봐서 어떤 제재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웃픈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45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시간을 남기기도 한다고 하니 그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학생들은 물론 지문도 빨리 읽겠지만 ‘선지 판단’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지문을 읽는 시간과 선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거의 반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율을 지문 8 : 선지 2 정도의 비율로 만들 수 있어야 비로소 시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텍스트의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혹은 지문에서 요구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선지 판단’의 시간을 줄여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선지 판단’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선지 판단의 태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문 읽기’를 잘 하는 것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한다면, 대부분의 선지들이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선지’가 됩니다. 혹은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미리 생각’한 내용이 선지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평가원은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었다면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선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문 읽기’를 잘 하는 것은 ‘선지 판단’의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 판단’을 빠르게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문 읽기’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 [생각의 양 / 생각의 질 / 출력 속도]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학생들은 하나의 문장 · 하나의 문단을 보고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 · 문단을 읽고서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선지의 내용과 본인이 한 생각이 겹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하게도 ‘선지 판단’의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구요.

또한 그 생각들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지문의 핵심과 무관한 생각, 특정 단어에 꽂혀서 삼천포로 빠지는 생각 등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문의 중심 내용에 맞춰 중요한 생각을 적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가원은 이렇게 ‘중요한 생각’의 내용을 선지로 출제합니다. 당연히 ‘선지 판단’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나아가 이렇게 ‘양’ 많고 ‘질’ 좋은 생각을 아주 ‘빠르게’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합니다. 이 교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생각의 ‘양’과 ‘질’ 측면은 꽤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교재의 후반부만 가도 어느새 해설지와 똑같이 읽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예요. 하지만 막상 시간을 재고 타이트한 상황

에서는 그렇게 ‘양’ 많고 ‘질’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벽을 넘어야 비로소 국어 영역 1등급이라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양’ 많고 ‘질’ 좋은 생각의 ‘출력 속도’를 높이는 것이 국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의 경험’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교재에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헛갈리지 않게 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납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당 내용이 일종의 상식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도록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들의 ‘출력 속도’가 빨라지면 ‘선지 판단’의 시간도 확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독서 지문을 공부할 때는, 최대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그냥 넘어가는 유연함도 필요하겠지만, 평소 공부할 때는 이러한 ‘생각의 경험’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 잘 와닿지 않으시죠?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래 문단을 읽으면서, 최대한 ‘이해’하고 ‘납득’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장의 내용이 ‘당연’하게 느껴지도록 읽으시면 됩니다. 스스로 해 본 다음 해설을 읽어보세요.

- ①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②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③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④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⑤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⑥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⑦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⑧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⑨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⑩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⑪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⑫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① 당연한 말입니다. 뽕뽕거리는 ‘심벌즈 소리’보다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더 듣기에 좋죠.
- ② 이렇게 듣기 좋은 ‘피아노 소리’와 같은 것을 ‘고른음’, ‘심벌즈 소리’와 같은 것을 ‘시끄러운음’이라고 합니다. ‘고르다’와 ‘시끄럽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③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기성’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음이 특정한 ‘주기’를 갖는 ‘성’질일 것인데, 특정 음이 ‘주기’를 가지는 경우에는 무언가 규칙적인 느낌이 있으니 ‘고른음’이 될 것이고, ‘주기’를 가지지 못하면 소리가 불규칙하게 나기 때문에 ‘시끄러운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 ④ 일반적으로 음악에서의 ‘음’은 ‘고른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음악의 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에 해당하는 ‘고른음’을 지칭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니다.
- ⑤ 앞에서 말했듯이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네요. 역시 미리 생각한 ‘당연한’ 내용입니다.
- ⑥ 같은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마치 ‘진동’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파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처럼 말이죠.) 따라서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⑦ ‘진동수’가 커진다는 것은 1초에 같은 파형이 더 많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파형이 반복되면 높은 음의 소리가 날 것입니다. 마치 영상을 배속하면 더 높은 음으로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진동수’가 커지면 ‘음고’가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 ⑧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인파의 모양이 ‘주기’를 갖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파형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 ⑨ 사인파의 진폭이 커진다는 것은 그 파형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니다.
- ⑩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음악 소리가 전부 사인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음고나 음의 세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은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악들은 각각 다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대부분 악기에서 나오는 음이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단순음’이 겹쳐지면 복잡한 음으로 들릴 수 있겠네요.
- ⑪ 이렇게 여러 개의 ‘단순음’이 겹쳐진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복합/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복합음’의 ‘부분’을 이루는 단순음들을 ‘부분/음’이라고 한다는 것 역시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너무나 당연하네요.
- ⑫ 이처럼 ‘복합음’ 안에는 서로 다른 ‘진동수’로 이루어진 많은 ‘단순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 즉 ‘음고’가 가장 낮은 것을 ‘기본음’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기본’이 되는 ‘음’이네요. 나아가 우리의 귀는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 전체의 진동수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귀는 가장 듣기 편한 소리를 인식할 것이니, ‘음고’가 가장 낮은 ‘기본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네요.

여러분이 하신 생각과 얼마나 비슷하신가요? 지금 당장 얼마나 비슷하게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단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설을 보면, 이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읽거나(②,③,⑧,⑪,⑫)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납득하거나(③,④,⑨,⑫) 앞에서 생각한 내용을 끌고 오기도 하고(⑤,⑪,⑫) 우리의 경험 및 지식을 살려 이해하기도 합니다.(⑥,⑦,⑩)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고른음 · 시끄러운음, 진동수, 음고, 단순음, 복합음, 기본음’와 같은 수많은 정보를 ‘당연한 정보’로 만들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읽는 학생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기억해야 할’ 개별적 정보겠지만, 우리에게 ‘상식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읽고 나면 다른 문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 정보들을 활용한 선지들을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문장을 처리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들입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단어의 의미도 살펴보고, 내 나름의 논리를 세워보고, 앞부분의 내용 및 생각을 끌고 내려와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보는 등의 ‘생각’을 하다보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내용들이 ‘이해’되고 ‘납득’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이제 여기에 더해, ‘문장’을 읽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생각들과 이 도구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최대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애쓰다는 태도에 맞춰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의 정의
2. 재진술
3. 사례 - 원리 연결
4. 고정값

이런 기본 도구 외에도 더 많은 스킬이나 방법론이 존재하겠지만, 그것들의 지향점은 결국 이 기본 도구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배우는 것들만 완벽히 체화할 수 있다면,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 도구가 완벽히 내 머리에, 눈에, 몸에 익숙해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니, 걱정 말고 내 눈 앞의 텍스트에만 집중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지문' 단위의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문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인 '화제' 인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1) :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어' 단위의 공부와 '문장' 단위, 그리고 '단문' 단위의 공부까지 끝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지금까지 배운 걸 모두 적용하여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아야겠죠? 이때 우리는 지문 독해의 대전제로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평가원의 지문에는 '정보량'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러한 전제하에서 글을 읽으려고 애를 쓰시면, 지문의 정보량을 '능동적'으로 줄이면서 부담감 없이 선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를 위한 첫 번째 태도, '화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차근차근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지문 단위'의 독해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문 독해'란 문장 간의 연결을 의미하고, '재진술'이나 '사례-원리 연결' 등 문장 간의 연결은 충분히 연습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문장 간의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하나를 추가할 것입니다. 바로 '화제'입니다. 독서 지문은 정말로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잘 쓴 글'이라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야기, 즉 '화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은 하나의 '화제'가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정보들이 그 '화제'를 부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간의 연결'은 결국 '화제와의 연결성'이라는 속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지문을 읽으며 '화제'를 정확히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화제'는 단순한 '중심 개념'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지문에서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1만 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룡 발자국 연구에서는 발자국의 형태를 관찰하고, 발자국의 길이와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을 알아낸다. (2009학년도 수능)

단순히 화제를 '중심 개념'에 해당하는 '공룡 발자국'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공룡 발자국을 통해 공룡의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해는 '길찾기'의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은 길이 꼬불꼬불하고 갈림길도 많은 미로를 탈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나아가 그 정보는 왜 나왔는지 그 '역할'을 생각하며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역할'은 결국 '화제를 뒷받침하기 위해'라는 답으로 귀결될 겁니다. 이처럼 정보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 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주시면, '화제'를 다시금 떠올리며 지문의 흐름을 잡을 수 있고, 위에서 이야기한 '길찾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화제'를 잡고, 그 '화제' 중심으로 문장들을 연결하는 것. 지문 독해의 기본입니다.



이번 파트에선 이런 '길찾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 '내가 읽고 있는 이 정보는 왜 나온 거지?', '이게 화제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럼 실제 기출된 지문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 시차: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제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미리 생각해 보세요. 화제가 무엇일까요?

만약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의 비교’로 잡았다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게 큰 무리는 아니지만, ‘양안 단서’와 달리 ‘단안 단서’의 경우 ‘재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번 설명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첫 문장이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즉 ‘단안 단서’와 관련된 물음이라는 점을 토대로 ‘단안 단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설명하는 지문임을 알 수 있어야 해요! 물음의 형식을 취한다는 건, 정말 궁금해서가 아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화제에 해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니까요.

이렇게 비교되는 두 대상이 나올 때는 하나의 대상 쪽, 즉 ‘화제’에 해당하는 대상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화제 인식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죠? 화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다음 문단들도 읽어 봅시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視角)\*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안 단서이다.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

나의 단안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안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도 단안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 시각: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단안 단서’라는 화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면, 나아가 2문단을 읽으며 ‘단안 단서의 종류’로 화제를 구체화했다면, 나머지 모든 정보들이 너무나 쉽게 정리됩니다. ‘물체의 상대적 크기’부터 ‘운동 시차’까지 전부 ‘단안 단서’로 모이니깐요! 만약 이 지문을 읽다가 중간 ‘결 기울기’ 즈음에서 정보량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며 ‘단안 단서의 종류’라는 화제의 흐름을 다시 잡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지문일수록 이 힘은 더욱 강력할 것이라는 점 이해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이렇게 ‘화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3문단에서 독해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안 단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3문단 첫 줄에서는 ‘운동으로부터’ 얻는 단안 단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정보의 ‘역할’은 화제인 ‘단안 단서’ 중에서도 ‘운동으로부터’ 얻는 단안 단서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더욱 정교한 독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화제’는 이처럼 1문단의 내용 속에서 물음 등의 형식을 빌려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목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지문에 따르면, 『여씨춘추』라는 책에서 ‘음악’은 ‘감정 표출로 형성’된 것이고, ‘백성 교화의 수단’이자,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음악 : 감정 표출 · 교화 · 즐거움 및 욕구’라는 일종의 ‘틀’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화제를 알려주는 틀을 ‘화제의 틀’로 부릅니다. ‘화제의 틀’이 제시되는 경우, 우리는 화제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고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문단에서 ‘화제의 틀’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체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여씨춘추』에서는 음악을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씨춘추』에 따르면, 천지를 채운 기(氣)가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가 자연의 기와 공명하여 천지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음악은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어 음양의 작용에 따라 자연에서 생겨나지만,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함을 위해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은 인간의 선천적 욕

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음악을 통한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씨춘추』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생(貴生)’의 원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인 욕구에 따라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씨춘추』에서는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일차적인 자연적 음악보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한 선왕(先王)들의 음악을 더 중시하였다. 그리고 선왕들의 음악이 민심을 교화하는 도덕적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뒷부분을 독해하면, 1문단의 ‘화제의 틀’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는 문장 하나하나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천천히 읽어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화제의 틀’이 정보를 모아 주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지문이 물음의 형태를 사용하든, ‘화제의 틀’을 사용하든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화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그 ‘화제’ 중심으로 모아주세요. 정보량이 줄어들면서 지문이 ‘이해’되고 ‘납득’되는 엄청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교재의 사용법’에서 알려드렸던 공부 방법을 꼭 지키면서 따라오도록 하세요!

(해설 p.008)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낱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①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⑦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 01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현하려 했다.
- ②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 ③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다.
-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묘사하려 했다.
- ⑤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다.

## 0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보기]



- 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 ③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④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

**03** 곰브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은 얻을 수 없다.
-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 기관이 필요하다.
-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04**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계는 발전할 수 있다.
-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고, 소 떼 그림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인다.

**05**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습득(習得)하게
- ② 체득(體得)하게
- ③ 취득(取得)하게
- ④ 터득(攄得)하게
- ⑤ 획득(獲得)하게

(해설 p.017)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샹폴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

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 0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0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08**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09**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 DAY 6 [10~15]

2018.06 [16~21] 인문 '율곡의 수기치인' ☆☆☆

### 1문단

①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②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④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 ①~③ #정의 제시

처음부터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중요한 건 '유학, 수기, 치인, 성인'이라는 많은 개념들의 '정의'를 체크하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정의들은 모두 화제로 보이는 '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므로, 외운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읽고 가야 합니다.

천천히 정리해봅시다. 먼저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수기치인'과 '성인'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으니, 곧 이들을 하나하나 소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수기'와 '치인'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상당히 기네요. 이렇게 정의가 길 때는, 그 정의를 함축적인 한 마디로 다시 정의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수기'는 '자신을 닦는 일'이고, '치인'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물 탐구', '앎을 투철히 함', '뜻을 성실하게 함', '마음을 바르게 함'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일들이고, '집안을 바르게 함', '나라를 통치함'과 같은 말들은 모두 나의 외부, 즉 사회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긴 정의를 모두 받아들이려고 하면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수기'와 '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된 사람이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학'이란 '자신을 닦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여 하늘의 도리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학문'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니, '성'학이라고도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단을 정리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수식된 정의 제시 #화제 제시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화제는 아니었나 봅니다. '율곡 이이'의 주장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때 '성학집요'라는 책의 내용은 선지에 나오기 쉬우니 미리 체크하자고 했죠?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책'입니다. 율곡은 이 책을 통해 유학의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 했다고 해요. 이 이상 사회는 당연히 '수기치인→성인'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화제의 틀'을 딱 잡아놓고, 정보들을 틀 안으로 모아 줄 준비를 하면서 읽어봅시다.

### 하이라이트 문장

④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유학'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소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율곡'이 어떤 이상을 꿈꿨다는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율곡'의 주장이 이 지문의 화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문단

①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②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③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④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 ① #카테고리 나누기 #수식된 정의 제시 #화제의 흐름

본격적으로 '율곡'의 주장을 체크해봅시다. 그는 '수양론'과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각각 '수기'와 '치인'을 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양론=수기=개인적인 것', '경세론=치인=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문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아가 그 바탕은 '이기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와 '기'를 통해 만물을 설명하는 이론이네요. 하나하나 정리해볼까요?



## ② #정의 제시 #비교/대조

‘이’와 ‘기’의 정의도 ‘수기’와 ‘치인’의 정의처럼 길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디로 정리하고 가려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먼저 ‘이’는 ‘만물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니 형체가 없을 것이고, ‘만물’에 적용되는 것이니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겠죠.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한 뒤 나머지 정의는 ‘납득’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더 이상 ‘이’라는 정보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 해볼까요? ‘기’는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말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는 ‘이’와 비교되는 대상이니, 같은 기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아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칙’이 아닌 ‘물질’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만물의 법칙’에 해당하는 ‘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대조를 치밀하게 해 주면 지문에 제시된 내용보다 더욱 선명하게 차이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지문 독해 과정과 선지 판단 과정에서 ‘이’와 ‘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기’는 이제 배경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 몰랐던 학생은 여기서 확실하게 지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굳이 ‘이’와 ‘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개념을 동양 철학 관련 지문에서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 ③ #재진술

이러한 ‘이’와 ‘기’는 특정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지만 ‘더불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른 성질을 갖는 건 앞 문장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서로 더불어 존재’한다는 정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정보네요. 다르긴 하지만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줍시다. 이렇게 만물을 ‘이’, ‘기’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기론’이네요.

## ④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화제의 흐름

‘이기지묘’의 정의가 나오기는 하지만, 앞 문장의 재진술에 불과합니다.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는 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지만 ‘더불어 존재’한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이기지묘’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일 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네요.

우리는 ‘이기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부터 ‘수양론’과 ‘경세론’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 ‘수기치인→성인’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화제의 흐름까지 체크하고,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 하이라이트 문장

①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수기치인→성인’이라는 화제가 ‘이기론→수양론/경세론’이라는 내용으로 구체화되는 문장입니다. ‘수양론/경세론’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눠주고, ‘이기론’에 대해 이해할 준비를 해야겠죠?

## 3문단

①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②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④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재진술

이제 본격적으로 ‘수양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딱 잡아 놓고, ‘수양론’이 ‘수기’, 즉 개인적인 차원의 ‘수양’을 의미한다는 건 계속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율곡은 ‘수양론’의 기반으로 ‘이통기국’을 주장했다고 해요. 정의 정확히 체크해줍시다. 이는 만물이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을 가진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한 이’와 ‘다양한 기’예요. ‘이’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본질적 요소이고, ‘기’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질적 요소라는 정의를 끌어온다면 가깝게 ‘재진술’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통기국’이라는 말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도,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끌고 와 그 정의를 ‘납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독해의 최종 목표는 ‘최대한 많은 문장을 당연한 말로 만들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 ③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렇게 ‘동일한 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통기국’의 재진술이자, ‘기질변화론’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해당하네요. ‘기질변화론’은 단어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질’을 ‘변화’시키자는 ‘이론’이겠지요? 계속해서 ‘이’는 변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 ‘기’는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재진술되고 있습니다.

### ④ #정의 제시 #정보의 역할

나아가 ‘거경, 궁리, 역행’라는 개념의 정의가 제시되네요. 이 정의들을 완벽하게 외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겠지요? 모두 ‘기질 변화’를 위한 수양 방법이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기질 변화’를 위한 수양 방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아가 이 개념들이 모두 ‘수양’ 방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양론’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잊으면 안 돼요!

### ⑤ #화제의 흐름 #재진술

결국 이런 ‘수양론’이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기론’을 바탕으로 ‘수양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경세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거네요. 다른 말로 ‘수기’에서 ‘치인’으로 나아간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기’는 ‘개인적’이고, ‘치인’은 ‘사회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양’을 했으면, 그것을 사회에 펼쳐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재진술에 불과합니다.

## 하이라이트 문장

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수양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경세론’이라는 카테고리로 옮겨갈 것임을 이야기해주는 친절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해요! 그래야 다음부터 나오는 정보들이 외계어가 되지 않습니다.

## 4문단

①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②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③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④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①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 #단어의 의미 살리기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경세론’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겠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율곡은 ‘법제 개혁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법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일 텐데, ‘법 제도’라는 ‘사회적’인 영역에 자신이 ‘수양’한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제의 흐름을 이용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 ②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갑자기 ‘선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와 ‘기’의 재진술일 뿐이요? ‘이’가 완전하고 ‘기’가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신하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에 대해 물었고, 율곡이 그 답변으로 올린 게 바로 ‘만언봉사’라고 합니다. 일단 ‘만언봉사’라는 책의 내용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기론’을 바탕으로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을 적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법제 개혁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 ③~④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율곡’은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을 보자마자 ‘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수양론’이든 ‘경세론’이든 모두 ‘이기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내용이니깐요. 즉, ‘법제’는 ‘기’, ‘왕도, 오륜’ 등은 ‘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라 할 수 있는 ‘왕도, 오륜’을 고칠 수는 없으니, ‘기’에 해당하는 ‘법제’를 개혁하여 ‘이’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율곡의 ‘법제 개혁론’, 즉 ‘경세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를 변화시켜 이를 구현한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4%	9%	13%	10%	14%

#### 04 윗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이번엔 '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지문의 화제 그 자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  
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었지.
해설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인 법의 상황과는 '달리'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차이점'에 집중하면서 읽었으면 바로 정답 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여기서 헤맸다면 반성하 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교 포인트에는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합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지 의무의 역할이지.
해설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 여부 결정과 보험료 결정 에 도움을 주는 장치였습니다. 당연히 납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  
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명시적 근거	3문단 7번 문장,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험 가입자가 '고지'해주니까.
해설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 정도'를 보험사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줄여 줄 수 있겠죠?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  
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6번~7번 문장,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책이었지.

해설	우리가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했던 '정보의 비대칭 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고지 의무'였죠? '정 보'를 '대칭'으로 만드는 방법이니깐요.
----	---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  
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  
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지 의무의 '의의'네.
해설	'고지 의무'가 없으면 기존 공동체의 '위험 정도'보 다 높은 위험 정도를 가지는 가입자가 생길 수 있 고, 그런 경우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 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이는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큰 부담일 수 있는데, '고지 의무'가 제대로 작동한다 면 이렇게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 겠죠? 역시 지문을 읽으면서 당연하게 납득했던 정보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9%	23%	50%	8%

#### 0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보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  
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역시 <보기>부터 정리해봅시다. 보험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B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알  
게 된 상태예요. A는 '해지권 행사 가능 기간' 내에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말에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이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고지 의무를 위  
반하여 가입한 B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었기 때문이니깐요.

나아가 만약 지금 발생한 보험 사고가 위반한 '고지 의무'와 큰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때도 계  
약은 해지되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  
한 <보기>를 정리해놓고 선지 판단에 나서도록 합시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험사가 잘못된 거면 못 돌려받지.
해설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못 한다면, 계약에 따라 줘야 할 돈인 보험금은 당연히 돌려 받지 못하겠죠.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예외에 대한 인식! 굉장히 중요해요.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5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실 없으면 해지할 수 있지.
해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유효 기간만 지킨다면 해지권은 무적이었습니다. 예외 상황이 아닌 것이 예요. 당연히 해지할 수 있으니 틀렸죠.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7번~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못 돌려받지.
해설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해지권은 배제됩니다. 아무리 B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욱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A의 해지권이 배제되었으니, 보험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히 힘들겠네요. 1번 선지와 같은 상황이지요?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니.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 그대로네요. 인과 관계가 없다는 '예외'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 존재했어요. 해지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말이에요! 애초에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은 '보험 사고'와 관련

된 것이고, 계약 해지는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었던 것이예요.

한 문단 내에서 제시되는 정보들을 확실하게 카테고리화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 FAQ

**Q** 말씀하신 대로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는 보험사에게 계약 해지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5문단 4번 문장을 보면 해지를 하는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를 근거로 하면 A도 해지권을 써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정보를 파편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유기적으로 엮으면서 '납득'하며 읽는 태도가 있어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5문단 4번 문장의 해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준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은 어쨌든 그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줘야 할 돈이기 때문'인 것이죠. 일단 해당 보험 사고에 한해서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니(인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뒤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5문단 3번 문장에서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이 선지의 상황에서도, A는 일단 고지 의무 위반 사항과 인과 관계 없이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하고, 그 뒤 새로운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상위권들은 이런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빠르게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납득하며 읽기'라는 원론적이고 당연한 태도예요. 정보 하나하나 굽어모아서 눈알 굴리는 식이 아닌, 완벽하게 '납득'해서 선지를 뚫어낸다는 대원칙을 잊지 맙시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고 발생하고 알리면 안 되지. 바로 알려야지.
해설	‘고지 의무’의 핵심은 ‘계약 체결 전’에 알려서 보험사의 판단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공동체’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라면 이미 불공정한 공동체가 구성된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때 알린다고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지문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찾는 것도 좋지만, 이해하고 납득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워내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출문제 공부의 목적은 ‘생각의 힘 극대화’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3%	5%	5%	29%	18%

**06**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①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②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④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⑤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③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④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⑤ **문제해결형 지문** : 결국,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하면 해결책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내용 총정리 |**

정보도 많고 숨이 차는 지문이었지만, ‘공정한 보험+고지 의무’라는 ‘화제, 그리고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인식,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당연한 정보의 향연’으로 읽을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많이 복습해보도록 합시다.